

다산포럼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유지나 동국대 교수

유독 풍성하게 피어나던 벚꽃이 찬바람에 쓸려 흘러내린다. 세월호 침몰 1주기를 보내는 서울의 대기는 누런빛을 반사하며 지난 기억과 현재 진행형 풍경을 아프게 흘러보내는 중이다.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라는 들뢰즈의 미래 예견은 한국 세상에선 현재 진행형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공지가 울리며 침몰하는 배와 함께 떠나버린 아이들의 죽음과 실종을 둘러싼 의혹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나가게 한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 곁에 없다.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심경 토로는 내게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퍼뜩 일깨워준다.

‘오피셜 스토리’(La Historia Oficial, 1985, 아르헨티나)에 등장한 ‘오월 광장

의 어머니들’ 이미지는 2015년 광화문 광장에서 봄비처럼 온몸과 맘에 저리하도록 스며든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앞, 아이들 숨결이 담긴 기저귀천으로 만든 하얀 스카프를 쓰고 목요일마다 오월 광장에 함께 모이는 어머니들은 1977년부터 군사정권이 비발리에 납치, 고문, 처형으로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 나선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알리시아는 입양한 딸 가비의 부모가 누군지 짐작 알게 되면서, 그저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던 광장 어머니들을 달리 보게 된다.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된 딸과 가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기업체 간부인 남편과 가비를 키우며 중산층으로 살아가던 알리시아에겐 공적 기억이 사적인 삶에 접속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다. 진실에 직면한 알리시아는 거짓을 만들어낸 폭력적 남편을 떠나 새로운 삶에 접속한다.

허구 영화장치를 통해 기억장치로서 예술의 힘을 보여준 이 작품은 남미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 여상을 수상하며 세계에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오월 광장의 어머니들’(1985)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힌 정부

는 어머니들에게 거액의 보상을금 제언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보상을금을 거절하며 광장을 지킨다. 이런 사건이 아픈 역사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은 채 다른 곳, 다른 시기에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힘은 지켜보는 아이들을 인식하는 희망에서 나온다.

추억의 명화로 손꼽히는 네오 리얼리즘 대표작 ‘자전거 도둑’(Ladri di biciclette, 1948, 이탈리아)을 기억하는가? 지켜보는 아이의 존재, 그 아이의 시선은 드라마를 짜나가는 방향타로 작동한다.

전단을 붙이며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을 힘겹게 찾은 아버지는 여배우 이미지를 보느라 한눈을 판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자전거를 훔쳐간다. 먹고 살 수단을 도둑 맞은 아버지는 아이 눈을 피해 다른 자전거를 훔쳐내지만 결국 아이는 지켜보고 있다. 이 영화를 만든 비토리아 데 시카는 무솔리니의 파시즘 치하에서 멜로드라마 스타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던 중 시나리오 작가 세자르 자바티니를 만나 현실에 접속하는 새로운 영화의 길에 들어선다. 그와 공동작업을 한 일련의 작품들에선 아이들의 시선이 핵심이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I Bambini Ci Guardano, 1943, 이탈리아)

와 ‘구두땀’(Sciuscia, 1946, 이탈리아)은 ‘자전거 도둑’과 더불어 아이들 시선의 힘을 깨우쳐준다.

최근 작고한 권터 그라스의 대표작 소설을 각색한 폴커 슈렌도르프의 ‘양철북’(Die Blechtrommel, 1979, 독일)에서도 아이의 시선이 영화를 주도한다.

나치 점령 시기 폴란드의 단치히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오스카는 어른들 세상의 부조리에 질려 아이로 남기로 결단한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춘 채 광기어린 세상을 지켜보는 아이의 시선은 마술적 리얼리즘의 묘미를 살려낸다.

이런 묘미는 책과 스크린 속에서만 간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배운다. 떠나간 아이들, 숨쉬며 지켜보는 아이들, 그리고 OECD기준 14년 간 초저출산국이자,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글쓴 교수의 충격적인 예언처럼 줄어드는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어른들 세상의 잘못을 수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다. SNS시대 지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세월호 사태를 풀어내야 아들도 아이들이 살만할 나라가 될 테니까.

NGO 칼럼

세월호 유가족의 보은(報恩)



최삼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사회복지담당

제때 적절한 도움과 보살핌이 주어졌다면 어떤 어둠이 뻗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건 일종의 직업병이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어떠한 보석으로 빛을 발휘하게 될지 꿈꾸는 일이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움을 주었던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거나, 본인이 받은 사랑만큼 사회에 보답하고자 연락 왔을 때는 내심 흐뭇한 마음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통과 실패, 좌절, 어려움 등 위기를 견디어내는 힘이 있다. 그 힘의 크기는 누구나 다르며, 어떠한 사랑과 관심, 보살핌 등을 받고 자랐는지에 따라, 주위에서 어떻게 지지했느냐에 따라 견디는 힘의 크기는 달라진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으나, 최대한 긍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려 하는 것, 또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도 그 힘의 크기

를 다르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이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기에 사랑에 대한 애착을 아끼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 어린이재단을 통해 고인이 된 자녀의 이름으로 정기후원을 하는 가족들이 있다. 2011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였던 염소영(75년생, 故 최성호군 어머니)씨는 생전 예 하나뿐인 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남긴 UCC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되고 친구들 5명의 부모가 만나 아이들의 꿈을 위해 매일 만나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면서 가족들과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관심을 받고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든 돌려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생각했다고 한다.

내 아이들이 미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로 한 부모들의 마음을 접했을 때 참으로 숙연해

졌다. 그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국민에게 받은 사랑만큼 우리 사회에 보은(報恩)을 생각한 것이다.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지만, 매년 경악하게 되는 건 마치 예견된 상황처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을 때 느끼는 참담함이다.

우리는 이제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수습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 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이 모든 불행이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 ‘만약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사고를 겪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며 방관하지 않고 관심 갖기를 바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나보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움 수 있을 때 진짜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성숙한 어른들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일!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기고

예방접종보다 나은 치료는 없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있으나 말라리아, A형간염, 신종플루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관리되지 않던 질병이 발병하고 있다. 또 한동안 줄어있던 각종 감염병이 다시 찾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화학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지구환경 변화와 국제 교역 및 여행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방 접종이 더는 필요 없다는 오해를 갖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예방접종의 대명사로 불렸던 폴리오나 디프테리아 질환의 발생이 급격히 줄고 이로 인한 사망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방 접종은 주로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때마다 건강한 아이에게도 필요하다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건강할 때라는 점이, 접종대상도 지역에 따른 역학적 차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 경제적 차이에 의해 조정되어 나라나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결핵, B형간염, 홍역, 수두, 일본뇌염 등 14종을 국가예방접종

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예방접종의 항목 중 소아마비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병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과 함께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1994년에 소아마비가 인도에서 캐나다로 유입되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면역성이 있어서 확산되지는 않았다. 예방접종을 중단해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천연두처럼 전 세계적으로 병이 박멸된 경우이다.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자 예방접종기관을 공공보건기관에서 점차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5월부터 어린이 A형간염과 10월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 지정한다.

장기계획으로는 백신 글로벌산업과 기반구축 사업과 국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우형 감염병, 생물테러 등에 대처하고 백신의 주권 확립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접종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예방접종관리팀(22개팀 23명)을 운영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비 15억7000만원, 장티푸스 등 5종의 임시예방접종사업비 14억8800만원 등의 예산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예방접종기관 144개소,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관 505개소 등 649개소의 민간위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14종은 연중 무료로 실시하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기관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방접종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천연두는 과거에 심각한 전염병이었지만 현재는 예방접종을 필요하지 않은 병이다. 이렇듯 현재 유행하고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도 꾸준히 예방접종을 하고 관리하면 미래에는 더 이상 발병하지 않을 것이다. 예방보다 나은 치료는 예방접종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社說

‘지역인재 우선 채용 폐지’ 저의가 무엇인가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있어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발의로 상정된 개정안은 ‘우수인력 고용을 위해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박해자 의원은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특별법에 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있는데 왜 이 개정안에서만 빼야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중덕 문체부 장관이 “평창특별법의 경우도 지역 우선채용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곧바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 제 65조에는 “특구사업 시행자 및 입주

기업은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그렇다면 왜 문체부는 이런 무리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일까. 문체부 한 관계자는 말에 답이 있다. “지역 우선채용 의무 제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실상 ‘규제’에 해당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여당 의원의 지적대로 개정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개정안이 나온 것은 규제 완화의 경수를 울리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해당 법안이 실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정된 것만 봐도 ‘규제 완화 실적’만을 목표로 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지역인재 고용을 정부가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겨우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가닥 잡은 발전연구원 통합 이제 속도내야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도는 지난 17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통합 이사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고, 공모를 통해 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통합 연구원장은 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토록 했으며 이사회는 시·도와 시·도의회가 동수로 추천한 15명 이내로 구성기로 했다. 그동안 시·도 연구원 이사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았으며 연구원 원장도 시장, 지사가 임명해 왔다.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현재 광주시 82억 원, 전남도 163억 원인 양 시·도간 기금 차이를 인정하고 통합기금 245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연구원 부지와 관련해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발전연구원 통합을 위한 가닥이 추려진 것이다. 하지만 발전연구원이 하나로 출범하기까지 산적한 과제 해결과 의회 조례안 개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도 연구원 통합은 시·도 상생의 첫 단추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남발전연구원은 통합직업에 대비해 지난 2월 만료인 원장의 임기를 ‘통합 때까지’로 연장했으며,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후임 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조직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 광주세계U대회 개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 통합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도의회는 이제 조례 개정 등 연구원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연구원 통합을 기점으로 시·도가 역량을 결집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하와이’ 하면 머릿속에 우선 연상되는 것은 와이키키 해변과 훌라(Hula)춤, 민요 ‘알로하 오에’(Aloha‘oe)일 것이다. 가보지 않았더라도 ‘태평양의 낙원’인양 묘사하는 영상매체들의 영향이 크다.

‘하와이’라는 지명은 이 섬을 처음으로 발견한 폴라네시아의 전설적인 항해가인 ‘하와이로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778년 영국 제임스 쿡선장에 의해 유럽에 알려졌고 이후 1898

래, 기도, 한탄, 신에 대한 찬미가 어우러진 원주민 사회의 대표적 제의(祭儀)였다”며 “하와이 원주민의 언어와 정치 제도, 문화와 종교 전통을 이해하지 않고서 훌라 춤을 이해하고 감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암 출신 김세영(22·미래에셋)이 지난 1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역전의 여왕’이라는 별칭에

훌라춤

결맞게 그녀는 연장 첫 번째 훌에서 150야드(137m)를 남기고 시도한 두 번째 샷

을 그대로 훌업으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전통문화 역시 왜곡되거나 사라졌다.

훌라 춤에도 원주민의 가슴 아픈 역사기 배어있다.

옛날에는 종교적인 의식 때 주로 남자들이 추었으나 서구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한 후부터는 전통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관광객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했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의 ‘적도의 침묵’에 따르면 훌라 춤은 하와이의 구전(口傳)문화이자 구전역사였다. 저자는 “훌라 춤은 본래 즐거움과 경외, 노

를 그대로 훌업에 넣어 선배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대회 마지막 날 어김없이 빨간 바지차림을 한 김세영은 우승 후 대회 전통에 따라 훌라 춤 세리머니까지 선보여 우승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요즘, ‘성완중 리스트’ 파문과 맞물려 사람들의 가슴 속은 파르름이 깃든다. 답답한 세상살이 속에서 ‘태극낭자’(娘子)들의 단비 같은 낭보(錦報)가 자주 전해졌으면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